

믿음직한 양돈장  
환기시스템의 선두주자  
근육산업 고명근 사장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보답하는 자양조의 정신으로  
환기시스템 전문업체 근육산업  
(Ventilation system Kun Ok Industrial)  
대표전화 (0461) 742-1904, 3733, 4572

충남 논산에 위치하면서 전국적으로 양돈장의 환기계통 모든 시설을 제조·보급하고 있는 근육산업은, 현재 17명의 근육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양돈장 환기시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자부심 속에서 깨끗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70년대부터 실제로 양돈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근육산업 고명근 사장(48세)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91년부터 현재의 근육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90년대초 15일간의 덴마크 견학을 자원하여 다녀왔으며, 이때 축사 환기계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내 돈사환기 시스템의 선두주자로서 더 나은 기술의 축적과 양축가의 이익을 위해 현재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항상 농가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170만원으로 공장운동을 시작했다는 고

명근 사장은 굴뚝형 환을 생산하면서 축산인들이 보여준 많은 호응도가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 주었다며 겸손해 하며, “항상 농가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좋지도 않은 제품을 양축가분들의 호응 덕분에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보답으로 완벽한 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생복으로 방역을 철저히 한 A/S팀이 하루 16시간씩 항상 대기하고 있구요. 요즘 양축농가들이 많이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마짜 어려움을 벗어나 다시 여유롭게 축산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라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그는 축사의 환기조절이 여태껏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이제는 세가지 요소, 즉 첫째, 외국 축산 선진국의 환기시설이 우리나라의 지역적 기후와 온도에 맞지않아 실패를 거듭했으나 이제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우리 실정에 맞는 환기기술이 발달된 점이고 둘째, 축사를 설계하고 지을 때 이제는 환기시스템을 생각해서 현대식

제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양축가를 위해서 축사의  
환기시스템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자돈사의 개조는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PSY를 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할수 있습니다.

축사를 짓는 점이며 셋째, 단열제가 좋아져 축사내에서 환기 유지가 가능해진 점을 들 수 있다고 한다.

### 자돈사의 환기 시스템은 필수

환기 시스템은 그냥 외국에서 하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설치하고 가동하여서는 효과를 다 볼 수 없다.

공기의 흐름, 지역적 환경, 축사의 설계, 사양관리에 이르기까지 양돈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져야 올바른 환기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판매업체는 수치상의 완벽한 이론과 함께 최소한 1, 2년의 검사기간을 거쳐 실제 농가에서 1년이상 사용해 보고 제품을 양축가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환기에 필요한 자세한 사용법과 기본적인 환기 지식까지도 양축가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후 사용할 때의 책임까지도 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때 양축가들은 너무 자신의 고집과 지식에 연연하지 말고 전문가의 견해와 지시에 따라줄 것을 고명근 사장은 당부했다.

“아직까지 환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생제 잔류문제를 없애고 사료비, 연료비,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자신이 일귀 가꾼 근육산업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고명근 사장. 뒷편에 축산기구 전시장이 보인다.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선순위를 늦추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양축가를 위해서 축사의 환기 시스템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자돈사의 개조는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PSY를 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습니다.”

고명근 사장은 양축가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가 철저한 자돈관리로 농장 경쟁력을 높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자돈방’이라는 세균, 질병없는 자돈 컨테이너를 개발하여 농가가 직접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

라며 6월초 시판할 계획이라고 한다.

## 우리 실정에 맞는 우수한 제품으로 재투자 없도록

전국에 2000여 농가, 150여 곳 무창돈사를 이미 설비한 바 있는 근육산업은 KD-500 굴뚝형 배기팬을 비롯하여 최근 대형팬(36, 48인치) 개발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제품 개량을 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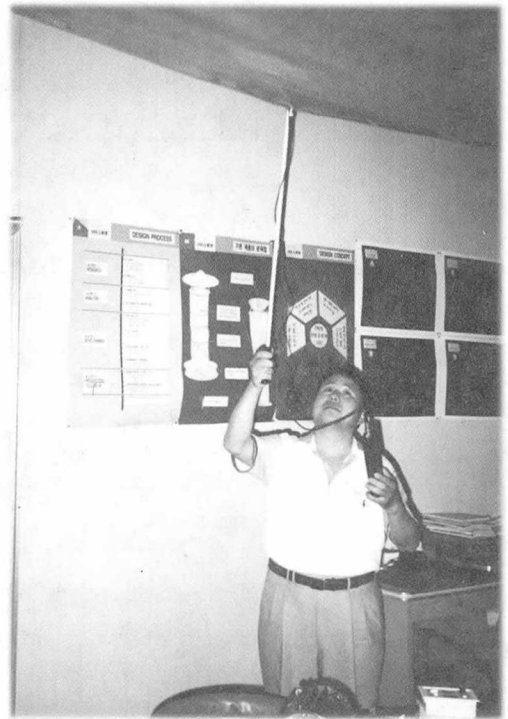
이번 IMF 상황을 역이용해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근육축산 고사장은 200평 축산 기자재 상설 전시관을 공장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에 앉아서 양돈장내의 환기와 온도, 사양을 한눈에 보고 조절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수입제품이 좋다고 하나 가격과 품질면에서 자신있게 비교해 볼 것을 고사장은 권장한다며, 현재 5개 수입품 업체가 있어 국내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양돈은 계속된 육질개선을 위한 품종 개량으로 돼지의 강건성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고 말하면서, 축사의 환경문제 개선으로 항생제 없는 돼지를 생산해 내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축산인들의 의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바라는 점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희망이라면 실험농장을 가지고 실제 농가실험을 해 보는 거죠. 제 농장에서 직접 사용해 보고 정말 하자 없는 제품을 농가에 보급해 재투자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 바램이죠. 현재 농산부에 정책자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라며 신념에 찬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근육산업 고명근 사장은 슬하에 2남1녀



위/근육에서 생산하는 대형 팬  
아래/기술개발 연구실에서 고명근 사장이 직접 환기의 원리와 환기량의 측정법을 설명하고 있다.

를 두고 있는 가장이며, 대학교 2학년인 큰아들이 계속해서 근육산업을 이어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취재 : 조진현> **義豚**